

# 사회자본과 정보격차의 사회적 함의

## Social Capital and the Social Implication of Digital Divide

이 승 민\*

Seung-Min Lee

### 차 례

- |                        |                  |
|------------------------|------------------|
| 1. 서 론                 | 4. 데이터 분석 및 분석결과 |
| 2. 사회자본 및 정보격차의 일반적 개념 | 5. 결 론           |
| 3. 정보격차와 사회자본의 결정요인    | • 참고문헌           |

### 초 록

현재의 정보격차는 전통적인 개념의 정보격차와는 달리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과거에는 정보격차와 사회자본은 별개의 개념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현재의 정보격차는 사회구성원의 사회자본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보격차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결합함으로써 과거의 이분법적인 사회집단의 구분을 한 단계 더 분리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급속한 발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구조적 분리는 과거와 같은 정보격차 해소방안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March 2002 survey)를 사용하여 ICT의 활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정보격차와 사회자본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 키 워 드

사회자본, 정보격차, 정보통신기술, 정보불평등

\*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문헌정보학 박사과정  
(Doctoral student,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diana University, USA,  
seungmin@indiana.edu)

• 논문접수일자 : 2006년 11월 20일

• 게재확정일자 : 2007년 3월 8일

## ABSTRACT

The current notion of digital divide is quit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digital divide. People have considered that digital divide and social capital are separated notions and are not related with each other. However, in this current information society, the digital divide affects the process of building social capital, and thus these two concepts have become closely related with each other. Now, the notion of digital divide is combined with social capital theory and has created new social phenomena that multiple divisions of social structu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 plays important roles in this new social and informational environment.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relationships between digital divide caused by ICTs and social capital.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divide and social capital, this research used datasets provided by the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March 2002 survey).

## KEYWORDS

Social Capit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Digital Divide, Digital Inequality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의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사회구성원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보는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행동의 범위를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의 범위는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의 질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

하느냐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 기술을 통해,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를 보다 손쉽게 획득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ICT의 개발과 보급은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양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사회의 여러 가지 측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CT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ICT는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질을 높여준다. ICT를 활용함으로써, 사람들은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 정보를 통해 더 많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ICT는 정보격차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초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격차는 정보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의미하는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이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그 정보를 이용해 보다 많은 다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들 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의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반면,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정보의 활용이나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적게 누리게 될 것이다. ICT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들에게는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기회 또한 제한될 것이다.

결국, ICT의 이용 및 정보활용력의 차이로 인해 유발되는 정보격차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격차를 가져올 것이다. 이 사회적 격차는 이전까지의 격차와는 다른 유형의 그룹, 즉 보다 넓고 제한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자본을 지닌 사람들 및 보다 적은 정보를 이

용하고 제한된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사회자본을 지닌 사람들의 두 그룹을 생성하게 될 것이다. 정보격차로 인한 각 개인의 사회자본에서의 차이는 전통적인 관점과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며, 또한 이를 정보격차와 사회자본의 형성을 연결시킨 하나의 통합된 사회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CT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격차와 사회자본 사이의 실제적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정보격차를 야기시키는 요인들 및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들 각 요인들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에 중점을 두고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보격차와 사회자본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관계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1.2 선행연구

사회자본 및 정보격차 각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그 논의의 내용 또한 상당히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보격차와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는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현재는 인터넷 활용정도의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다층적인 정보격차 및 이의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자본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대두되는 미디어 및 정보통신기술

이 기존의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보급이 각 개인의 사회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 왔지만, 이들 연구는 이전까지 논의되어 온 사회자본의 유형을 인터넷의 활용과 관련지어 새롭게 도식하는 데 그치고 있다.

사회자본의 형성과 정보격차와의 관계 및 이들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iMaggio와 Hargittai(2001)는 정보격차의 개념을 보다 확장시킨 정보불평등(digital inequality)의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정보를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이분법적인 차이인 정보격차의 개념은 현재와 같은 정보사회에서는 점점 더 모호해져 가고 있으며, 정보를 소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접근과 활용의 불평등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정보불평등을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터넷 설비, 인터넷 활용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습득 여부, 인터넷 접속을 위한 사회적 지원, 인터넷 기술을 소유하는 목적 등이 포함된다. 이 연구는 전통적인 정보격차의 개념을 보다 확장된 정보불평등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정보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인터넷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Quan-Haase와 Wellman(2002)은 인터넷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를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첫째, 인터넷은 저렴하고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며,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와 커뮤니티 참여를 제한하던 지역적 한계를 제거해 줌으로써 각 개인의 사회자본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인터넷은 각 개인을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단위인 가족과 친구로부터 떨어지게 함으로써 사회자본을 쇠퇴시킨다는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를 통해 각 개인의 사회자본을 확대시키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Dijk와 Hacker(2003)는 네트워크에의 접근 방식에 따라 정보격차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면서, 정보격차의 개념을 과거의 전통적인 정보격차에서 네트워크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에 따른 격차로 확장하여 논의하고 있다. 또한,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제적 수준, 직업유무, 교육수준, 연령, 인종의 5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기술 및 네트워크의 활용정도 등의 새로운 요인이 정보격차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Warschauer(2003)는 정보사회에서의 사회자본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ICT를 통해 정보사회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장벽을 제거해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ICT와 정보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요소로 사회자본을 들면서, ICT의 활용은 사회자본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정보사회의 발전은 이들 강화된 사회자본에 기반을 두게 될 것이라고 논의하고 있다.

오철호(2002)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야기된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정보활용 및 이의 생활화와 관련한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정보화기술의 보급을 제안하면서, 이 기술 보급을 위한 환경은 각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보급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관계는 정보화에 대한 인식 및 정보통신기기의 이용능력에 따라 확장 또는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경재(2005)는 이전까지 제시되어 온 전통적인 사회자본 대신, 인터넷과 결합된 사회자본으로 '인터넷 사회자본'의 개념을 주장하면서, 인터넷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사용으로 생성된 가상공간의 특성과 사회자본의

개념을 연결시킴으로써 전통적인 사회자본의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사회자본생성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현 정보사회에서 ICT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정보격차라는 현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이 정보격차가 사회전반에 걸쳐 가져오는 변화 및 각 개인의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회현상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들 연구들은 ICT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으며, 사회자본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한 실제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ICT와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요인들 사이의 실제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CT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격차와 사회자본 사이의 실제적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정보격차를 야기시키는 요인들 및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들 각 요인들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에 중점을 두고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보격차와 사회자본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관계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2. 정보격차 및 사회자본의 상관관계

정보격차와 사회자본은 복잡하고 다중적인 개념이며, 현재까지도 그 의미가 명확하게 합

의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선 각각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본 연구와 관련된 각각의 정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격차와 사회자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1 정보격차

### 2.1.1 정보격차의 개념

현 정보사회에서의 정보격차 역시 복잡하고 다중화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정보격차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불평등 또는 차이를 의미한다(OECD 2001, 8; Houston and Erdelez 2004, 19). 정보격차라는 용어가 처음 대두되었던 1990년대에는 컴퓨터의 소유 여부가 정보격차를 결정짓는 주된 요인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와 같은 정보환경에서는 인터넷에의 접근 여부 또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활용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즉, 정보격차는 정보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이나 활용을 의미함과 동시에,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로까지 그 개념이 확대될 수 있다(서이종 2000). 현재와 같은 정보환경에서, 정보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는 이분법적인 정보격차의 개념은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라는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정보기회란 정보를 갖지 못한 계층이 정보기술을 소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됨으로써 다른 사회계층과 평등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Kuttan and Peters 2003). 정보격차와 정보기회 모두 사회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개념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정보격차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유무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지만, 정보기회는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정보격차는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접근의 격차를 의미하지만, 정보기회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습득 및 이를 통한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보격차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정보격차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접근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들 기술의 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다. 정보격차는 초기에는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언급하는 것이었다. 이 개념에서의 정보격차는 경제적 수준, 교육수준, 연령, 인종, 성별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왔다. 하지만,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 및 ICT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ICT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그렇기 때

문에 컴퓨터 소유 여부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더 이상 정보격차를 측정하거나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와 같은 정보사회에서의 정보격차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의 접근가능 여부, 네트워크의 활용 여부 등과 같은 활용성 여부가 정보격차를 측정하는 표준이 되고 있다.

### 2.1.2 정보격차와 ICT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정보환경에서는 정보격차의 개념이 이전의 정보격차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전의 환경에서는 정보통신기기, 특히 컴퓨터의 소유 여부가 정보격차의 주된 요인으로 인식되었지만, 현재는 컴퓨터의 소유 여부 뿐만 아니라 온라인 네트워크에의 접근, ICT의 활용 여부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확장된 개념의 정보격차는 ICT를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술적 능력에 기인한다.

하지만, 정보격차의 개념과 관련한 이들 정의는 ICT의 활용 및 이를 통한 정보의 획득 등 기술적인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보격차가 가져오는 전반적인 사회현상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ICT를 소유하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전통적인 의미의 정보격차는 ICT의 활용 여부의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격차를 가져옴과 동시에 사회의 계층구조에도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이 새로운 유형의 격차는 ICT의 활용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를 의미하게 된다. ICT를 활용할 수 있는 계층에서는 이를 통해 자신의 생활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이외의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참여하여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다. 또한, ICT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를 얻게 되며, 새롭게 획득한 정보는 이외의 다른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결국, ICT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지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를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반면, ICT를 소유하지 못하거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계층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확장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오프라인으로 한정될 수 있다. 또한, 획득하게 되는 정보의 양도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두 계층 사이의 정보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정보획득의 격차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계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정보환경에서의 정보격차는 정보와 기술에 대한 소유나 단순한 접근뿐만이 아닌 정보와 기술의 활용 여부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있다.

## 2.2 사회자본

### 2.2.1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자본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중적인 개념이며, 현재까지도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개념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자본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 적합한 사회자본의 개념을 정의해보고자 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은 Lyda Hanifan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Hanifan 1916). 그는 사회자본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선의(good will), 동료의식, 사회적 교류 등을 사회자본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정의하면서, 공동체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자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Jacobs 등의 학자들을 통해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들의 참여와 의사결정, 시민의식의 함양 등을 통한 발전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Jacobs 1961, 60). 이 사회자본의 개념은 Bourdieu와 Coleman에 이르러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었다. Coleman은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을 물리적, 인적, 사회적 자원으로 구분하고, 이중 사회자본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자본으로서, 두 사람 혹은 많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구조 안에 내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Coleman 1988). Bourdieu는 사회자본을 집단과 사회

에서의 위치와 관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공동적인 속성을 지닌 사회구성원들의 집합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는 사회자본을 자신이 소속되어 있거나 자신과 연결된 집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의 총합이라고 보고 있다(Bourdieu 1983). Bourdieu에 따르면, 각 개인의 사회자본의 총량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 연결된 다른 사람의 사회자본까지도 포함한 것이 된다. 이 사회자본의 개념은 Putnam에 이르러 대중화되었는데, 그는 사회자본을 “사람들 사이의 협동 및 사회적 교류를 촉진시키는 사회적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Putnam 1993, 38), 신뢰, 규범, 사회적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의 참여, 각 개인의 사회적 관계 등을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Putnam 이후, 사회자본의 개념 및 사회자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Warschauer는 사람들이 가족 또는 커뮤니티 등에서 유지하는 개인적 관계가 사회자본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개인적 관계는 사람들 상호 간에 정보, 호혜적 영향, 사회적 신뢰 등을 제공해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자본의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 커뮤니티, 시민사회 등에 존재하는 사회적 규범, 가치기준, 상호교류 등을 들고 있다(Warschauer 2003).

이를 종합해 보면, 사회자본은 각 개인이



지난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유무형의 자본으로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구조 안에서 개인적인 관계의 힘을 통해 축적되는 사회구성원 각각의 능력이며, 각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연계되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자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통해 다시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키고 사회자본을 강화시키는 순환적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 2.2.2 사회자본과 ICT

Putnam은 TV의 시청이 미국 내에서의 사회자본의 쇠퇴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Putnam 2000). 최근의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들이 최신 정보기술의 이용과 맞물려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자본의 쇠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ICT의 이용을 들 수 있다. ICT의 이용은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으로 연결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ICT의 활용으로는 이메일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여러 분야에 걸친 온라인 커뮤니티에의 참여, 온라인 신문이나 뉴스 등을 통한 정보획득, 온라인상에서의 여가활용 등을 들 수 있다. 인터넷과 ICT를 이용해,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

며,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다. 이는 개인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었던 지역 커뮤니티에의 참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의 참여로 대체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유대관계의 형성이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적인 관계로 변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통한 상호적인 정보의 공유가 매스미디어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전달 및 획득으로 바뀌면서,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약화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ICT의 이용은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자본을 쇠퇴시키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ICT의 이용이 사회자본의 강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Hampton과 Wellman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다 광범위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Hampton and Wellman 1999). 일부 연구에서도 인터넷 이용자들은 기존의 오프라인상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ICT를 활용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의 통신기술의 이용이 다른 형태의 사회적 상호교류를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Kling 2000). 이 온라인상에서의 통신기술들은 사회적 상호교류를 보완하고 확장시켜주고 있다. 결국, ICT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상호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주며, ICT 이용자로 하여금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커뮤니티 모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자본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ICT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둔 것이며, ICT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현 정보사회에서는 사회구조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구성요소들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ICT는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와 기술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ICT의 이용은 사회구성원들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자본형성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3 정보격차와 사회자본

사회적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ICT 기술들이 사회구성원 개인의 사회자본의 형성이나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에 활용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CT의 이용은 각 개인의 사회활동을 폭 넓게 하고 사회자본을 확장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정보격차라는 사회현상을 야기시키며 사회자

본을 축소시키기도 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소유하고 활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사회의 구조적 분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ICT에 의해서 유발되는 정보격차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격차를 생성함으로써 각 계층 사이의 사회자본의 분리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ICT 기술의 개발과 광범위한 보급은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보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다른 수준들이 정보격차를 일으키고 있다. 정보격차는 사회구조를 정보의 활용 여부에 따라 여러 개의 계층으로 분리시키게 되는데, 이들 각각의 계층은 정보의 활용 정도에 따라 사회자본의 형성에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ICT를 이용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개인의 사회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ICT를 활용하지 못하는 계층은 자신의 사회자본을 증대시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적 관계의 축소를 가져옴으로써 사회적 고립의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는 사회 각 계층의 사회자본의 분리

를 초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생성되는 사회 자본에서의 격차는 보다 심화된 정보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의 형성과 정보격차 현상은 ICT를 매개로 하여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3. 정보격차와 사회자본의 결정요인

정보격차와 사회자본은 모두 다중적인 개념이며,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들 각각의 사회현상을 결정하는 요인들로는 중점을 두는 측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왔으며, 그 범위 또한 상당히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선, 정보격차를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Dijk 와 Hacker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의 세 가지를 정보격차의 주된 결정요인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인종, 소득수준, 컴퓨터 보유 여부,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여부를 부가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Dijk and Hacker 2003). Matei와 Ball-Rokeach는 교육수준, 연령, 소득수준, 성별, 거주지역 등을 결정요인으로 들고 있으며(Matei and Ball-Rokeach 2001), 이외에도 직업, 커뮤니티 참여 등이 정보격차의 결정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Gardner and Oswald 2001).

사회자본과 관련된 연구 가운데, Kraut 등은 커뮤니티 참여, 정치적 참여, 사회적 신뢰, 인터넷 이용, 소득수준, 연령, 교육수준, 성별 등을 사회자본의 주된 결정요인으로 제안하고 있으며(Kraut et al. 1998), 인터넷 활용 여부, 이메일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관계의 정도 등을 부가적인 결정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Quan-Haase and Wellman 2002).

이들 정보격차 및 사회자본의 결정요인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ICT의 소유 및 활용과 관련이 있는 정보격차의 4가지 요인(연령, 소득, 교육수준, 인종) 및 사회자본의 결정요소 중 ICT와 관련이 되어 있는 4가지 주된 요인(인터넷 사용, 사회참여, 이메일 이용, 사회적 관계)을 선정하여 이들 상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 각각의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1 정보격차 결정요인

##### 3.1.1 연령

정보격차를 결정짓는 가장 두드러진 요소 가운데 하나로 연령을 들 수 있다. 어린 세대는 새로운 기술을 비교적 쉽게 습득하며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반면, 기성세대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기존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 두 그룹 사이에는 ICT와 같은 새로운 기술과 관련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차이는 ICT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의 차

이를 유발할 수 있다.

### 3.1.2 소득수준

경제적 능력은 ICT의 소유와 관련한 정보 격차의 생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ICT를 소유하거나 유지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정보에 접근하거나 정보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정보사회에서는, 인터넷, 컴퓨터를 비롯한 ICT의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은 과거에 비해 그 영향이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최신 ICT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영향이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득 수준은 정보격차를 유발하는 데 있어 여전히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 3.1.3 교육수준

정보사회에서의 정보격차는 정보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이나 차이뿐만 아니라 ICT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에서의 차이에도 기인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ICT에 대한 요구와 이용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ICT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없는 정보를 사용하고 획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것이다.

### 3.1.4 인종

이는 정보격차의 다른 요인들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소수 인종 집단에 속

해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충분한 소득을 얻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ICT를 소유하거나 이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며, 이는 인종 간의 정보격차를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부분의 ICT 기술들은 영어를 주된 언어로 채택하고 있다. 소수 인종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영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ICT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려우며, 이 또한 인종 간의 정보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3.2 사회자본 결정요인

### 3.2.1 인터넷 사용여부

인터넷 이용은 정보격차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인터넷의 이용에 포함된 내재적인 의미는 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등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사회자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이용을 ICT의 활용에 포함시켜서 논의하고 있다.

### 3.2.2 사회참여

사회참여는 사회를 구성하는 공통의 공간, 공통의 자원, 공통의 기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Breton 1997).

사회활동에의 참여는 커뮤니티에서의 사회자본을 형성해 줄 수 있다. 이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구축해 주며, 또한 사람들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게 해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참여는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지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3.2.3 이메일 사용

이메일의 사용여부는 인터넷 사용여부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이메일 또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이용은 인터넷 이용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메일이 인터넷의 여러 기능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는 각 개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메일과 인터넷은 전혀 다른 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메일 이용은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화, 편지, 직접적인 만남 등과 같은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이메일(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통해 상당부분 대체되고 있다.

### 3.2.4 사회적 관계

이는 사회자본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강한 관계(가족, 친구 등)를 맺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관

계를 맺기도 한다. 사회적 관계는 이 두 가지 종류의 관계를 통해서 구축되고, 확장되며, 때로는 축소되기도 한다.

## 4. 데이터 분석 및 분석결과

### 4.1 데이터 분석

ICT의 이용으로 비롯되는 정보격차와 사회자본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에서 제공하는 자료집 (March 2003 survey)을 이용하고 있다.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는 인터넷이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의 IT 조사기관이며, 인터넷의 발전 및 활용과 관련된 실제 데이터를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인터넷 이용 분야에서의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권위 있는 기관으로 여겨지고 있다.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는 인터넷이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족관계, 커뮤니티, 직장, 일상생활, 교육 수준, 건강 등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분석함으로써 다른 기관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에 비해 보다 논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자료집은 단기간 동안 수행된 설문조사에 기반하고 있

고 수집된 데이터의 범위가 협소한데 비해,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에서 제공되는 자료집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방식이 각 개인들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자료집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자본과 정보격차 사이의 상관관계를 전반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이 보다 실질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자료집은 기본적인 인터넷 이용도, 이메일 이용도, 가족과의 연계, 사회자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총 3,533명이 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의 질문사항들은 미국 내에서의 ICT의 이용 및 사회자본의 형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총 7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 질문사항들은 정보격차와 사회자본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일부 질문사항들만을 선별하였으며, ICT의 이용과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결과를 재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 분석과 차이 검증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한 각 변수들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 4.2 분석결과

총 3,533명의 응답자의 연령의 평균값은 45.73(SD=1,385)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최종적으로 취득한 학력을 1-7까지의 단계로 재부호화 하였으며(1: 무학력, 2: 고교중퇴, 3: 고교졸업, 4: 고교졸업 후 비정규과정, 5: 전문대학졸업, 6: 대학졸업, 7: 석사/박사 학위 취득), 이의 평균값은 4.35(SD=1,658)로 나타났다. 인종은 4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응답자의 78.5%는 백인, 흑인 11.8%, 아시안계 2.0%, 기타 인종 7.7%로 구성되었다. 소득수준(가족 전체의 소득)은 1-8 단계로 재부호화 하였으며(1: \$10,000 미만, 2: \$10,000-\$20,000, 3: \$20,000-\$30,000, 4: \$30,000-\$40,000, 5: \$40,000-\$50,000, 6: \$50,000-\$75,000, 7: \$75,000-\$100,000, 8: \$100,000 이상), 평균값은 5.52(SD=2,620)로 나타났다(〈표 1〉 참조).

ICT 이용은 6단계로 재부호화 하였으며, 1: 하루 몇 차례 이상(23.2%), 2: 하루 한 번(29.1%), 3: 주당 3-5일(23.9%), 4: 주당 1-2일(15.4%), 주당 1일 미만(5.4%), 6: 거의 사용안함(2.3%)으로 나타났다. 이메일 이용은 3단계로 재부호화 하였으며, 1: 매우 자주 이용(58.3%), 2: 자주 이용(40.0%), 3: 가끔 이

〈표 1〉 기술통계

	평 균	표준편차	수
인터넷 사용여부	2,62	1,385	1364
이메일 사용	1,83	1,023	1087
사회 참여	1,52	,807	1538
사회적 관계	1,60	,940	436
연 령	45,73	19,450	3533
교육수준	4,35	1,658	3533
인 종	1,51	1,414	3533
소득수준	5,52	2,620	3533

용(1,5%)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는, 응답자의 53,4%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5,9%는 참여를 원하지 않고 있다(결측치 0,7%). 사회적 관계에서는, 47,9%의 응답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이용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50,9%는 ICT를 통한 관계유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다음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한 각 변

수들의 유의성 검정을 실행하였다. 여기에서는, 연령, 소득, 교육수준, 인종을 독립변수로, 인터넷 사용, 사회참여, 이메일 이용, 사회적 관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검정을 수행하였다. 전체적인 요인들의 상호관계와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정보격차를 결정짓는 각각의 요인들(각각의 독립변수)이 사회자본 결정요인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표 2〉 종속변수 교육수준과 사회자본 결정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상수)	4,778	,274		17,414	,000
인터넷 사용여부	,018	,064	,017	,285	,776
이메일 사용	-,004	,110	-,002	-,037	,971
사회 참여	,276	,119	,129	2,318	,021
사회적 관계	,007	,081	,005	,092	,927

〈표 3〉 종속변수 소득수준과 사회자본 결정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상수)	5,119	,452		11,324	,000
인터넷 사용여부	,216	,105	,119	2,061	,040
이메일 사용	-,150	,182	-,049	-,829	,408
사회 참여	,203	,196	,058	1,034	,302
사회적 관계	,182	,133	,078	1,366	,173

〈표 4〉 종속변수 인종과 사회자본 결정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상수)	1,320	,202		6,550	,000
인터넷 사용여부	,044	,047	,055	,947	,345
이메일 사용	-,011	,081	-,008	-,138	,891
사회 참여	-,054	,088	-,035	-,621	,535
사회적 관계	-,017	,059	-,017	-,293	,770

〈표 5〉 종속변수 연령과 사회자본 결정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상수)	42,377	3,345		12,670	,000
인터넷 사용여부	-1,207	,775	-,089	-1,558	,120
이메일 사용	-2,370	1,343	-,104	-1,764	,079
사회 참여	,211	1,454	,008	,145	,885
사회적 관계	2,330	,983	,134	2,369	,018

각 변수들의 유의성 검정결과를 보면, 정보 격차를 결정하는 각 요인들과 사회자본 결정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보격차의 결정요인들이 사회자

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요인들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사회구성원의 교육수준이 온라인 접속 여부나 이메일 사용,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사회참여에는 다소 긍정적인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에 참여하는 빈도와 활동은 증가하지만, 교육수준이 ICT의 활용에 있어 그룹 간의 차이를 야기시키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가족 전체의 소득수준은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이나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사회활동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ICT를 이용하는 빈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은 각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소득수준과 사회적 관계의 확장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

셋째, 인종은 사회자본을 결정하는 데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ICT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사회적 관계의 확장과도 거의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령은 사회참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ICT의 이용과는 긍정적인 관계가 성립함으로써, 연령이 낮을수록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사회적 관계의 확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개념의 정보격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왔던 인종은 사회구성원 개인의 사회자본형성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

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정보환경에서는 인종은 ICT의 이용이나 ICT를 통한 사회활동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격차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개인의 사회자본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순서를 살펴보면, 연령은 ICT의 이용 및 ICT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관계의 형성, 커뮤니티에의 참여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정의 소득수준은 ICT 이용과 ICT를 통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은 커뮤니티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ICT의 활용 및 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과는 거의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연령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사회자본형성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젊은 세대에 비해 사회적 관계의 확장이나 사회활동에의 참여가 저조해 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소득수준이 ICT의 소유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전의 정보격차 형성에서도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나, ICT를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도 비교적 용이하게 확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ICT를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 비해 보다 나은 사회자본을 수용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교육수준에 따라 인터넷 또는 ICT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이들 신기술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ICT를 접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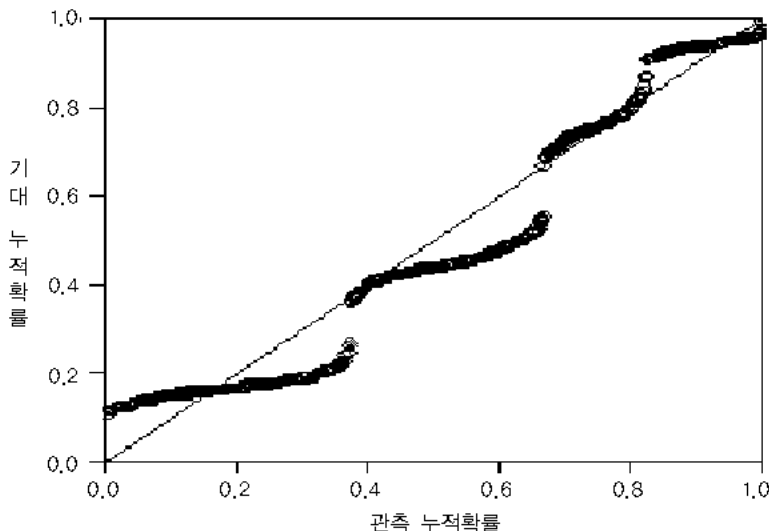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ICT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사회활동 및 커뮤니티에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자본을 증대시키는 것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보격차 결정요인들은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방식은 과거의 전통적인 정보격차가 사회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정보격차로 인해 사회구성원이 ‘정보를 가진(또는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정보를 갖지 못한(또는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두 그룹으로 구분되었으나, 현재에는 정보격차로 인한 사회구성원의 구분은 보다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의 구조적 분리라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보격차와 사회자본을 결정하는 모든 요인들 사이의 관계

를 종합적으로 도식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 4.3 분석결과의 사회적 적용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격차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과거의 이분법적인 구분과는 달리 사회구성원을 4개의 집단으로 분리하고 있다. 이를 보면, 정보격차는 사회구성원의 사회자본형성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치고 있으며, 정보와 ICT를 활용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보다 세분하고 있다. 정보와 ICT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진 사람’ 집단에서도 ICT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사회자본을 강화시키는 집단과 단지 정보와 ICT의 활용에만 그치는 집단으로 나누고 있으며,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 집단 역시 현재의 사회자본을 유지



<그림 1> 정보격차로 인한 사회자본의 분리

하는 집단과 자신들의 사회자본을 쇠퇴시키는 집단으로 세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급속하게 개발되고 보급되는 ICT로 인해 정보격차의 양상은 과거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정보격차는 사회구성원 사이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각 개인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구조적 분리는 과거와 같은 정보격차 해소 방안과는 다른 차원의 해결방안을 필요로 한다. 정보격차와 사회자본의 형성이 다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또한 다중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과거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나 활용능력을 제거함으로써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정보격차와 사회자본의 형성을 연결시킨 하나의 통합된 사회현상으로 이해하여, 정보통신기술이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 및 사회자본 형성의 차이를 극복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격차 및 사회적 격차의 해소를 위한 앞으로의 노력도 정보통신기술의 보편적 제공이라는 전통적인 관점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을 보급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5. 결론

현재의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매우 중요

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많은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ICT가 개발되고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회구성원의 정보활용능력을 고양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오기도 한 반면, 정보격차라는 부정적인 측면의 사회현상을 유발시켜왔다. 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구성원의 사회자본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많은 정책과 노력이 있어왔지만, 정보격차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사회자본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구조적 변화, 특히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개념의 정보격차와는 또 다른 현상으로, 정보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이가 각 개인의 사회자본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정보격차는 과거의 정보격차 개념과는 달리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과거에는 정보격차와 사회자본은 별개의 개념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ICT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현재의 정보사회에서, ICT는 정보격차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이 정보격차가 사회구성원의 사회자본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격차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결합함으로써 과거의 이분법적인 사회집단의 구분을 한 단계 더 분리시키고 있다. 이는 정보를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집단을 사회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정보를 소유하지 못한

집단을 자신들의 사회자본을 쇠퇴시키는 집단과 현재의 사회자본을 유지하는 집단의 두 가지로 다시 구분하고 있다. 이는 결국 사회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격차라는 측면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구조적 분리는 과거와 같은 정보격차 해소방안과는 다른 차원의 해결방안을 필요로 한다. ICT로 인해 야기된 정보격차는 ICT의 보급과 공공기관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는 있지만, 정보격차로 인한 각 개인의 사회자본에서의 차이는 이와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며, 또한 정보격차와 사회자본의 형성을 연결시킨 하나의 통합된 사회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태룡, 2006. 시민단체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0(3): 27-51.

서이종, 1999. 디지털 정보격차의 구조와 사회문제화. 『정보와 사회』, 2: 68-87.

송경재, 2005. 인터넷 사회자본 연구의 동향과 과제. 『정보화정책』, 12(4): 3-22.

오철호, 2002. ICT의 발달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방향모색: 접근성 관점에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9: 73-123.

이승민, 남태우, 2005. Social implications of digital divide. 『인문학연구』, 38:

189-202.

Adler, Paul S. and Kwon, Seok-Woo, 2000. *Social Capital :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In Eric L. Lesser (ed.),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 and Application*, Boston: Burtworth Heinemann.

Bankston, C. L., and Zhou, M, 2002. "Social capital as process: The meanings and problems of a theoretical metaphor." *Sociological Inquiry*, 72(2): 285-317.

Berry, John N, 2000. "Bridge all the digital divides." *Library Journal*, 125: 9-10.

Bourdieu, P, 1983. Forms of capital. In J. C. Richards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ress.

Breton, R, (1997). *Atlas of the Languages and Ethnic Communities of South Asia*, New Delhi: Sage Publications.

Carvin, Andy, 2000. "Mind the gap: The digital divide as the civil rights issue of the new millennium." *Multimedia Schools*, 7: 56-58.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upplement): S95-S120.

Dijk, Jan van and Hacker, Kenneth, 2003,

- “The digital divide as a complex and dynamic phenomenon.” *The Information Society*, 19: 315-326.
- DiMaggio, Paul et al. 2001. “Social Implications of the Internet.” *Annual Reviews*, 27: 307-336.
- DiMaggio, Paul, Hargittai, and Eszter, 2001. From the ‘Digital Divide’ to ‘Digital Inequality’: Studying Internet use as penetration increases. Published as *Working Paper 19*, Center for Arts and Cultural Policy studies, Woodrow Wilson Schoo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ardner, Jonathan and Oswald, Andrew, 2001. Internet use: The digital divide. In Park, A. et al. (Eds). *British social attitude, public policy, social ties*, 18: 159-173. Thousand Oaks, CA: Sage.
- Hall, Peter A. 1999. “Social capital in Britain.” *British Journal of Politics*, 29: 417-461.
- Hampton, K. N. and Wellman, B. 1999. “Netville on-line and off-line: Observing and surveying a wired suburb.”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3(3): 475-492.
- Hanifan, L. J. 1916. “The rural school community center.”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7: 130-138.
- Houston, Ronald D. and Erdelez, Sanda, 2004. “The digital divide: Who really benefits from the proposed solutions for closing the gap.” *Journal of Information Ethics*, 2004(Spring): 19-33.
-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 Kling, R. 2000. “Learning about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social change: The contribution of social informatics.” *The Information Society*, 16(3), 1-36.
- Kraut, R., Patterson, M., Lundmark, V., Kiesler, S., Mukopadhyay, T., & Scherlis, W.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9): 1017-1031.
- Kuttan, A. and Peters, L. 2003. *From digital divide to digital opportunity*. Lenham, MD: The Scarecrow Press.
- Lin, Na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tei, Sorin and Ball-Rokeach, Sandra J. 2001. “Real and virtual social ties.”

-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3): 552-566.
- McLeod, J. M., Scheufele, D. A., & Moy, P. 1999. "Community,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The role of mass media and interpersonal discussion in local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6: 315-336.
- OECD. 2001.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 [cited 2006, 9]. <<http://www.oecd.org/dataoecd/38/57/1888451.pdf>>.
- Putnam, Robert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3: 35-42.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Quan-Haase, Anabel and Wellman, Barry. 2002. How does the Internet affect social capital. In M. Huysman and V. Wulf (Eds.), 2003.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cial Capital*.
- Revenaugh, Mickey. 2000. "Beyond the digital divide: Pathways to equity." *Technology Learning*, 20: 38-44.
- Serageldin, Ismail & Grootaert, Christiaan. 2000. Defin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ing View. In Partha Dasgupta & Ismail Serageldin (eds.), *Social Capital : A Multifaceted Perspective*, 40-58. Washington, D.C. : World Bank.
- Shah, D. V., Kwak, N., & Holbert, R. L. 2001. "Connecting and disconnecting with civic life: Patterns of Internet use and the production of social capital." *Political Communication*, 18: 141-162.
- Shah, D. V., Schmierbach, M., Hawkins, J., Espino, R., & Donovan, J. 2002. "Nonrecursive models of Internet use and community engagement: Questioning whether time spent online erodes social capital."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9(4): 964-9987.
- Sunstein, C. 2001. *Republic.co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rschauer, Mark. 2003. "Social capital and access." *Universal Access in the Information Society*, 2(4): 1-52.
- Wellman, B., Haase, A. Q., Witte, J., & Hampton, K. 2000. "Does the Internet increase, decrease, or supplement social capital?"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3): 436-455.